

법령 마련·예타 통과 '힘로'...한전 투자·의지 급선무

한전공대 설립까지 남은 과제들

한전공대의 입지가 나주 부영 CC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설립 추진 일정이 관심이다. 일단 한국전력 공사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남도와와의 실시협약 체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토지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정부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제정이나 기존 법령의 개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 등 한전 내부의 부정적인 인식과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이들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지원, 한전의 적극적인 의지 및 투자, 전남도·나주시의 행정적 뒷받침, 광주시의 측면 보조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전공대라는 이름에 걸맞는 한전 측의 적극적인 투자와 의지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적 구속력 가진 실시협약, 전남도의 지원 얼마나=한전공대 입지선정위원회는 향후 1순위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자체 제안내용 이행 협약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실시협약은 법적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전남도가 제안서에 명시한 ▲부지 조성 비용 ▲부지제공 조건 ▲설립 지원계획 ▲운영 지원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와 기간을 확정하는 과정이다. 지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제안서에서 10년간 각각 1000억원씩, 그리고 부지는 (주)부영건설이 부영CC(1000억원 상당)를 내놓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에 5000억원에서 최대 7000억원, 1년 운영에 최소 600억원에서 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가운데 얼마나 전남도와 나주시가 부담할지가 관건이다. 한전은 여기에 정부 지원도 바라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한전공대에 필요한 재원의)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외국인 주주도 있는 이사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 한전의 부담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을 감안해 한전에서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이끌어낼 관계 법령 언제 제정·개정

설립 5000억·운영비용 1년 500억

전남도·나주시 분담 규모 관심

한국당 반대속 정부지원 끌어내야

전남도 지원단 구성·입지 투기 대응

되나=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특별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아닌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25일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공대 설립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한전공대에 반대 목소리는 관련 법안 입법화가 시도되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과거 울산 과기대 설립 등의 전례를 봤을 때 야당도 강력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본인이)직접 나서고,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쳐 풀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전 내부에서도 특별법 개정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근거 법령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공대가 초기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단기간 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근거 법령을 만드는 것"이라며 "범정부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실시협약,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을 넘어서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남아있다.

한전은 부지가 결정된만큼 조만간 대학의 설립과 운영방안을 담은 최종 운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한전공대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장 선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학교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목표로 학교 설립 절차를 밟는다.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차원에서 한전공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가 논의되고 있으나,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 김우승 입지선정위원장(가운데)이 최종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나주 부영CC가 한전공대 입지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전남도, 부영 CC투기 근절·한전공대 설립 지원단 구성=전남도는 28일 나주 부영CC가 한전공대 부지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한전공대 설립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서기관급을 단장으로 한 지원단을 구성해 오는 2022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전공대가 들어설 나주 부영CC 인근 지역의 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의 후속 조치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 조성 탄력

한전·에너지밸리에 한전공대 가세로 산학연 결합 시너지

한전공대 부지가 나주혁신도시로 확정됨에 따라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 공약인 '에너지 사이언스파크'는 이미 조성된 에너지밸리에 한전공대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등을 묶어 산·학·연이 결합한 에너지 신도시 구상이다.

한전공대가 에너지 신산업에 특화된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우뚝 서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김 지사는 "한전 본사와 에너지 기업이 입주한 에너지밸리에 더해 한전공대를 유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묶으면 전남이 에너지산업의 알파오, 오메가 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 사이언스파크가 광주·전남을 포괄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에너지 사이언스파크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시즌2'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발표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도 담겨 있다.

혁신도시 시즌2 핵심사업으로 1480억원 규모

에너지 사이언스파크 조성과 2400억원 규모 차세대 이차전지 및 ESS(Energy Storage System) 선도도시 조성이 들어갔다.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는 한전·정부·지자체 등과 함께 공동연구 사업화를 지원하고 에너지 관련 기업·연구소를 유치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한전을 중심으로 정부·지자체 등이 참여해 창업·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 이차전지 인증센터와 ESS 재활용 기술개발 센터를 건립해 관련 산업 선도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한전 등 에너지 관련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과 연계해 에너지분야 맞춤형 스마트시티도 조성한다. 스마트 전력 인프라를 조성하고 에너지 통합 시스템도 구축해 혁신도시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에너지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공과대학 실현을 내건 한전공대가 오는 2022년 예정대로 개교하고, 에너지 융·복합 산업단지 구축,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가 조성되면 광주·전남은 국가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거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교수 100명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세계 최고 에너지 특화 대학 목표

한전공대는 어떤 대학?

교수 연봉 과기대 3배 이상 보장

학비·기숙사비 등 모두 무료 운영

한전공과대학(일명 켈코텍·Kepco Tech)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 중심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 예정이다.

한전공대는 연구·교육·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주체로서 에너지 분야에서 20년 내(2040년) 국내 최고, 30년 내(2050년) 세계 최고의 공대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목표다.

한전공대는 '소수 정예 대학'을 모토로 대학원은 6개 에너지 전공에 100명씩 600명, 학부생 400명 등 총 1000명 + α (외국인 학생) 규모로 설립된다. 우수 교수진 확보를 위해 과기대 3배 이상의 연봉(4억원+α)을 보장하고 국내 대학 2배 수준의 연구 시드머니(10억+α)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융합·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창업 슈퍼 엘리트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학생 대 교수 비율을 10대 1로 구성하고 학비는 물론 기숙사도 무료로 운영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연구소 및 대학과의

공동 연구 기회 등도 제공한다. 총장은 노벨상 수준의 국제적 수상 경력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십과 네트워크를 갖춘 인사를 영입, 학교 운영의 전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한전공대는 캠퍼스 40만㎡, 산학연 클러스터 40만㎡, 연구시설 40만㎡ 등 총 120만㎡ 규모로 설립해 에너지 연구 분야의 세계적 랜드마크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 집적·공유로 클러스터 구성원의 동반 혁신은 물론 에너지 밸리의 성장을 이끄는 코어 플랫폼 역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2019년 광주·전남지역 부동산시장 대전망

새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들... 아파트, 상가,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각종규제·공급과잉·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떠오르는 토지시장의 해답은 무엇일까? 세계경기불안으로 인한 향후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현명한 자산관리 비법공개 국가에서 개발하는 신개발지를 찾아라

강의내용

- 수도권 및 지방 주택, 아파트시장의 전망
- 전국 토지시장의 전망과 분석
- 평택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분석
- 최고의 투자 유망지역을 찾아라
- 소액으로 건물주 되는 법 특강!

행복한 부동산강의와 상담이 함께하는

[박관식 전문가의 방송 안내]

▶ WOW 한국경제TV '박관식의땅땅땅' 생방송 출연중!! (매주 일요일 저녁7시(본방) / 밤1시(재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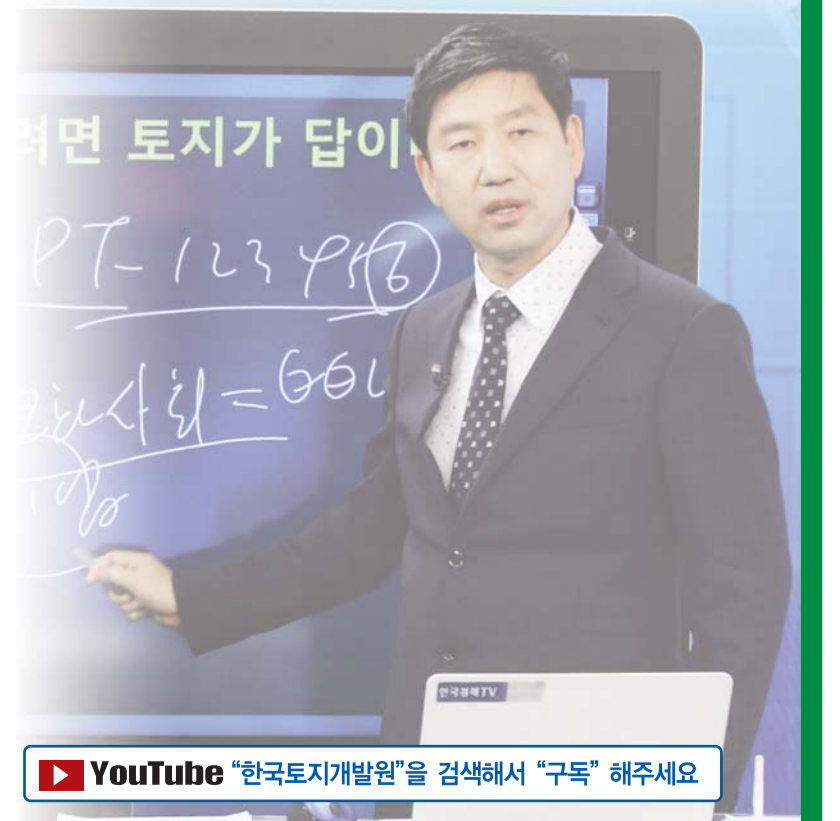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광주

- 일시 : 2019년 1월 30일(수) / 오후 2시~5시
-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59-2) (1호선 김대중컨벤션센터(마루역)하차 5분출구 직진 200m(3분소요))

* 당일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 특별 무료상담 진행



▶ YouTube "한국토지개발원"을 검색해서 "구독"해주세요